

4.13 총선 RUN·RUN·RUN

김윤덕 예비후보 "여성 취업걱정 해소 노력"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 갑 예비후보·사진)은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개인적으로 세 딸 아이의 아빠로서 양성평등의 중요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점심시간에 완산교회에서 완산구 여성봉사활동단체인 해바라기봉사대와 자정면 봉사활동을 함께 하며 "여성이 당당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 일자리 확대에 여성의 취업 걱정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육아휴직 급여 인상,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 경력단절여성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취업훈련프로그램도 개발 및 확대 운영, 자녀와 주말을 가족과 함께 하는 '칼퇴근 법' 등을 여성 공약으로 약속한 만큼, 공약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이상직 예비후보 "일·가정 양립 제도 실현 시급"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전주 을 예비후보·사진)은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의 인권" 또는 "일·가정 양립" 관련 법제도를 실제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 "법제도는 선진국 수준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이상 조직 내 실현이 어려운 문화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일·가정 양립과 보육에 대한 정책이 여성을 위한 것이라 보는 시각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함께 인지해야 할 것"이라며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정착되기 까지 제도적 장치를 계속해서 정교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20대 총선 공약인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남녀동수 확보', '36%인 성별임금격차 OECD평균인 15%까지 줄이기', '몰래카메라 범죄 및 스토킹 데이터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광영 기자

박종덕 예비후보 "진정성 있는 후보 가려내야"

더불어민주당 박종덕 국회의원 예비후보(전주 을·사진)는 당내경선과 관련 "진정한 경쟁력 있는 준비된 후보를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그러기 위해서는 1~2퍼센트 응답률을 보이는 일반전화 여론조사 가 아닌 응답률 높은 모바일 여론조사가 실시되어야 하고 그 이전에 후보자간 정책토론회를 열어 당원 및 유권자에게 누가 진실로 새누리당 후보에게 경쟁력 있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후보는 "현역의 기득권현상에 연연해서는 본선에서 상대 후보를 압승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이나 국민의당과 달리 정책선거를 선도하기 위해서라도 4명의 복수 예비후보 간 정책토론회에서 상호간 정책질의 및 합리적 비판과 대안제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광영기자

강동원 예비후보 "쌀 시장 추가격리 등 대책 절실"

더불어민주당 강동원 의원(남원임실순창 예비후보·사진)은 8일 지난 해 9월 이후 지속적인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져 쌀 시장 추가격리 등 정부의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1월 5일 20kg 기준으로 4만820원하던 쌀값이 올해 같은 시기 기준으로 3만6,640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정부가 지난 해 10월26일 쌀 20만톤에 대해 시장격리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 기준 전년동기 대비 10%나 쌀값이 하락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임기응변식 단편적 쌀 생산조정 정책에 대해 농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내 쌀 생산량이 무너지지 않도록 쌀 수급, 가격 안정대책은 식량안보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벼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쌀은 농가소득의 주수입원이고 생계수단이므로 정부가 지속적인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영수 기자

예비후보 6명 국민의당 집안싸움 '불거리'

Report 제20대 총선 격전의 현장을 찾아 - ①전주 갑

전주 갑은 새누리당 1명, 더불어민주당 1명, 국민의당 6명, 무소속 2명 등 모두 10명의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전주 갑은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49) 의원의 재선 여부가 관건 포인트다. 또 여는 지역과 마찬가지로 김광수(57), 강동호(52), 이기동(59), 홍찬혁(54), 이관승(57), 유철갑(69) 등 국민의당 예비후보간 집안싸움도 불거린다.

여기에 맞서 무소속 유종근(72) 전 전북지사, 이범석(46) 전 헤럴드뉴스 편집부장도 합류, 치열한 혈투가 예상된다.

일단, 전주 갑은 김윤덕 의원이 지난 2012년 19대 총선 것발을 꿰고 난 이후 20대 총선에서 당내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입지가 막강하다.

이 때문에 국민의당 후보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추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또한 국민의당 후보들이 경선이후 세를 규합할 경우 지원사격으로 인해 김윤덕 후보가 계속 앞서 갈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된다는게 정가 의견이다.

먼저 새누리당 천상덕(50)후보는 도시와 정치권의 문화를 반드시 정비한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전주시내 도심의 노후화의 피해가 주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도시를 경영할 도시 정비 전문가임을 자처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경우 전희재(66) 전 새누리당 중앙당 제2사무부총장이 공천 추가 공모 신청을 해서 전 후보와의 경선 또는 단수 전락 공천이 예상되고 있다.

제6.8대 전주시의원, 제9.10대 전북도 의원을 지낸 국민의당 김광수 후보는 12개

김광수 등 6명 출사표 던져 무소속 유종근 등 2명 가세

더민주 김윤덕 의원, 현재 당내 경쟁자 없어 입지 '막강'

새누리, 천상덕 후보 이어 전희재 공천 신청 경선 예상

희망공약을 내세웠다.

김 후보는 사회지도층의 모범적 사회 공헌 활동 진작을 위해 100시간 사회봉사 의무화 추진, 전북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정비법 등 개정 및 폐지를 강조했다.

국민의당 이기동 후보는 기성세대로서 사회적 책임에 나서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정치에 첫 발을 디뎠다.

이 후보는 검사출신으로 황교안 국무총리와 함께 근무하는 등 중앙 인맥이 풍부, 중앙과의 연결 매개체 역할이 기

대된다. 하지만 지역에서의 낮은 인지도는 극복해야 할 과제다.

이 때문에 이 후보는 출근길 거리인사 등을 통해 이름과 정치비전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 후보는 희망을 잃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 후보는 인구는 줄고 고령화해 경제 낙후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는 전북 현실을 개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민의당 이관승 후보는 전북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되찾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 후보는 코아백화점회장과 코아그룹 총괄 부회장을 역임한 한토기업 출신이다. 그는 대표공약으로 저출산대책으로 영유아 무상의료 실현,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을 내세웠다.

11 경제고문과 제29.30대 전북도지사를 지낸 무소속 유종근 후보도 관심이다. 유 후보는 전주를 아시아 최고의 국제관광도시로, 청년들이 가장 바쁜 도시로, 중앙년층이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광영기자

"도내 사회복지제 과제 해결 책임자"

복지사 700명, 김성주 후보 지지

전북도 사회복지사 700인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개 선언했다.

8일 700인 대표로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장에 선 이목자, 최윤자, 배인재, 박승택, 황일태, 박기주, 우연태 사회복지사는 "전북도 사회복지사 700인은 전북도 주민의 행복한 삶을 구현하기 위해 김성주 예비후보와 동행할 것을 선언 한다"며 김성주 예비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이들은 "저출산 고령화, 빈곤 불평등과 이로 인한 위화감과 사회 갈등이 사회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상태"인데, "정부는 이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인

보편적 복지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성주 예비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보편복지 국가, 지속가능 사회, 사회적 경제'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 된 후, 이를 이행하기 위한 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지지선언의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노력을 온몸으로 증명해 온 김성주 예비후보가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전라북도 사회복지계의 과제를 해결해 줄 적임자라고 확신한다"며, "당선을 통해 전북이 보편적 복지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절히 염원한다"고 김성주 예비후보 재선에 힘을 실었다. /신광영 기자

"줄어드는 소규모 농가 보호 대책 절실"

더불어민주당 박민수 의원(사진)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자료 분석한 결과, 경지규모가 작거나 경지가 없는 소규모 농가들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60% 수준인 45만6,000호까지 감소했고 0.1ha 미만 농가도 2만6,000호에서 절반 수준인 1만4천호까지 감소했다.

농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농가 감소는 더욱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지가 없는 농가는 1970년 7만2,000호에서 2014년에는 7분의 1 수준인 1만호까지 감소하면서 전체 농가수 감소폭보다 훨씬 큰 감소를 나타냈다.

전체 농가수는 같은 기간 248만3,000호에서 45% 수준인 112만1,000호로 감소했다.

반면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있는 3.0ha 이상의 농가는 같은 기간 3만7천호에서 2배 이상인 9만7,000호까지 증가해 농지의 규모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전문선 기자

최행식, "공약 진실성에 무게중심"

새누리당 최행식 예비후보(익산시장·사진)는 8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출마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 예비후보는 자신의 공약들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은 공약을 발표하고 그 안에 담고 있는 진실성과 실현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 출마 결심에 대해 "수십



년째 답보상태에 있는 익산시의 발전과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정당인 새누리당을 고민했다"면서 "이런 입장의 제의도 있었지만 믿고 있는 집권여당만이 익산을 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이영훈, 역사도시 위상 확보 약속

국민의당 이영훈 예비후보(익산시장·사진)는 익산이 고대, 근대, 현대의 역사가 공존하는 역사문화의 도시임을 강조하고 근대문화유산 역사도시의 위상 확보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8일 익산이 근대문화유산 역사도시의 위상 확보를 위해 익산의 근대문화유산의 거리를 통해 군산, 익산, 전주를 연결하는 관광벨트를 구성하는 시너



지 효과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세계가 인정한 백제의 찬란한 미술품과 왕궁, 금기의 고대문화유산, 이차의 탄생과 성장의 근대문화유산을 이용한 근대문화유산 역사도시의 거리 조성은 꼭 추진해야 할 테마 사업임을 주장했다. /정영수 기자

도의회입시회도정질의 "젊은 여성 인구 감소는 출산율 저하 요인 가능성"

전북도의회는 8일 제330회 입시회에서 전북도와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도정질의 했다.

이날 도의원들은 관광자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규제개선, 주택 과잉공급, 출산정책, 탄소산업 활성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장명식 의원(고창2)은 삼성 트림클래스 사업에 전북지역 아이들이 참여하지 못한 이유를 거론, 학생들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교육감 교육철학이지만 타 지역에서 보면 유독 전북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전북에는 연간 관광객이 100만명이 넘는 지역이 여러군데가 있다. 이러한 지역에 대형 숙박 시설이 필요하지만 근곳 규제로 사업성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한다.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와 규제개혁 차원에서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종철 의원(전주)은 최근 10년간 전북에는 14곳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졌고 현재도 만성지구, 예코시티, 효천지구를 비롯해 7개 구역에서 51개 단지

강영수 의원, 출산율 증진책 요구

장명식 의원 "관광숙박시설 규제 차원에서 건폐율 완화 등 필요"

가 개발진행중이거나 계획된 상태. 특히 전북 아파트는 공급과잉으로 2015년 기준 24개 단지에서 1,227세대가 미분양이다. 전북도의 주택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강영수 의원(전주4)은 전북도는 다른 도와 다르게 특별광역시가 존재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전북에 거주하는 20~30대 여성인구 감소는 출산율 저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맞춘 출산율 증진 대책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임신 출산 양육비용은 저소득층에 한정할 문제가 아니다. 출산정책을 연구하고 점검하는 조직과 함께 보다 강력한 출산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새민규 국제공항 유치와 관련하여도 현재 국제공항 건설관련 행정 인력은 3명에 불과하다. 국제공항유치팀을 구성해 행정전반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장명식 의원

김종철 의원

강영수 의원

이학수 의원

이학수 의원(정읍2)은 전북도가 탄소산업 육성정책을 거대하게 홍보했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 인되는 규모로 줄었다. 특히 예비타당성 검토자제도 필요가 없는 평범한 규제 확보사업으로 전략했다. 치밀한 기획력과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정확한 수요조사 등으로 탄소산업 육성에 탄력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도정질의와 관련해 전북도는 건 축면적이나 용적률, 층수 등의 불필요한 규제 때문에 대형 숙박시설이나 관광단지 들어올 수 없는 곳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관련법상 규제가 최대한 완화돼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2015년말 미분양 아파트는 1,227세

대로 전체 분양된 1만7,187세대에 비해 물량이 적고(7.1%), 미분양은 대부분 저층대로로 준공전 거의 해소됨을 감안하면 공급과잉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수급 조절을 위해 택지개발계획과 사업승인물량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약속했다.

출산정책에 대해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출산율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탄소산업은 사업명이나 사업비 산출 시 앞으로는 사업 기획단계부터 사업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사업비도 현실성 있게 사업계획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신광영 기자